

한국 패션 박물관 건립을 위한 패션 박물관의 기능과 현황 연구

박 주 희 · 최 현 숙⁺

사디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f the Func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Fashion Museum for Construction of Korean Fashion Museum

Ju-Hee Park · Hyon-Sook Cho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12. 3. 12, 심사(수정)일: 2012. 5. 23, 게재확정일: 2012. 6. 7)

ABSTRACT

These days, fashion museums that were established during the 60~70s in advanced countries are spiritedly planning opportune exhibitions as well as opening collections and accumulated research materials to the public. They are also publishing innovative visual references and offer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hey play a crucial role in speeding up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of fashion designers by accumulating archives through analytic researches. Since Korea has applied western fashion for over a century, now is the time to make a fundamental long-term plan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Korean fashion by gathering and classifying the history of a century.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ach a conclusion to construct fashion museum in Korea to discover as well as develop fashion talents and eventually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First,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history and the functions of fashion museum were analysed. 'The collection & exhibition' in the common thread is one function of the fashion museum. Another function is 'the research', which includes accumulations, classification and record of materials in a particular point of view. It also includes publishing catalogues with temporary exhibitions and open management to the scholars and the designers. 'The communication', which is enacted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events for inflow of new visitors, is the other function of fashion museum. The current state of fashion museums i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were also analysed. Korean public museums only owned traditional collections while public fashion museums in other advanced countries usually owned collection of the past and the present together. The only contemporary fashion museum in Korea is run private which leads to many problems. Finally, The study went further to suggest the advanced model of fashion museum in Korea based on the research.

Key words: collection & exhibition(수집과 전시), communication(소통),
fashion museum(패션 박물관), research(연구)

I. 서론

오늘날 옛 것을 수집, 분류하고 연구하는 박물관이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창조의 영감을 제공하고 그들의 천재성을 깨워주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실은 자명하다. 2011년 여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회고전,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는 소수의 열정으로 시작된 패션 박물관이 만인에게 매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66만 1509명으로 집계된 관람객 수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역사상 8위를 기록했으며, 성공적인 연례후원행사는 박물관의 적자문제를 일부 해결하였다.¹⁾ 행사와 전시 소식은 소셜 네트워크와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갔고, 10만부 이상의 전시 카탈로그가 각지로 배달되었으며 전시에 즈음한 왕실 결혼식의 드레스를 맥퀸사에 주문한 영국은 디자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한껏 떨쳤다. 사후에 박물관 전시로 세계인을 매료시킨 이 디자이너는 사실 패션 박물관이 만들어낸 악동이며, 따라서 19세기 디자인 후발국이었던 영국이 집행한 현명한 디자인 행정, 박물관 설립의 결실이다. 오늘날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하이패션에 데뷔시킨 컬렉션, '해적(pirate)'은 그녀가 V&A 박물관에 살다시피 하며 18세기 해적의상을 연구한 결과였고, 존 갈리아노를 세상에 알린 세인트 마틴 졸업쇼 컬렉션은 앙크루아야블(Incroyables)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으며, 알렉산더 맥퀸의 낭만주의에 대한 사랑 또한 오랜 세월이 걸친 축적과 구분의 결과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날 시의적절한 전시를 기획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소장품과 축적된 연구 자료를 개방하고, 비주얼 자료를 출판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패션 박물관은 디자이너의 독창성 개발에 일조하며, 더 나아가 국격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서양 패션을 받아들인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은 100여 년의 역사를 축적하고 분류하여 한국 패션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패션 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디자이너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 행정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패션 박물관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으며²⁾, 이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계기도 있다.³⁾ 그러나 패션 박물관과 관련한 연구로는 해외의 특정 전시를 기초로 진행된 연구⁴⁾가 있을 뿐, 패션 박물관의 현황이나 기능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나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박물관의 역사와 현황을 고찰하고 연구 및 교육 컨텐츠의 보고이자 창조 영감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문화지위를 제고시키는 한국 패션 박물관의 필요성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선진국의 패션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패션 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운영 형태를 박물관의 기능에 의거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박물관의 역사 속에서 패션이 독립적 학예 부문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패션 선진국이 운영하는 패션 박물관의 역사 및 운영사례와 서양 패션 후발국이지만 짧은 시간에 규모를 갖추고 자국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활동과 함께 하는 일본 KCI의 역사 및 운영사례를 고찰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한다. 연구는 복식사 관련 단행본 및 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연구와 국내외 박물관의 운영에 대해 박물관 홈페이지 및 전시 관련 기사 등을 통한 사례 연구를 병행한다.

II. 패션 박물관에 관한 고찰

본 장에서는 특정 주제를 수집, 분류하여 연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의 역사가 디자인, 더 나아가 패션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정착된 역사를 우선 살펴보고, 현대 패션 박물관의 기능 및 패션 선진국의 패션 박물관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패션 박물관의 기능으로는 수집 및 전시, 연구, 소통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박물관의 기능을 수집, 보존, 조사연구, 전시, 소통, 교육보급 등으로 밝히고 있는 선행 연구⁵⁾와 패션 박물관이 현재와 미래에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⁶⁾를 바탕으

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현황 고찰을 위해 선정된 패션 박물관은 정기적으로 주목을 끄는 전시 기획으로 패션 교육계와 패션 산업에 활기를 더하고 있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이하 Met)과 FIT 박물관(Museum at FIT, 이하 MFIT), 영국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이하 V&A), 프랑스의 장식미술 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과 시립 갈리에라 모드 박물관(Musée Galliera de la Mode de la Ville de Paris), 일본의 교토 의상 연구소(Kyoto Costume Institute, 이하 KCI)이다.

1. 패션 박물관의 역사

오늘날 박물관은 '사회와 그것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적, 항구적이며, 연구, 교육, 향유할 목적으로 인간과 그 환경의 물질적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소통,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기관'⁷⁾으로 정의된다. 사실, 박물관을 '기관'으로 인식한 것은 현대의 현상이며, 19세기까지 박물관은 '컬렉션'을, 이후에는 컬렉션을 수장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였다.⁸⁾ 인간의 수집, 분류 및 공공 개방의 역사는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과 교역의 기회가 증가했던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박물관은 1683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관한 애쉬몰리언 박물관(Ashmolean Museum)으로 원래 트레이드스켄트(John Tradescant) 공이 수집한 진귀품들을 자신의 집에 진열하여 'The Ark'라는 이름으로 공공에 유료로 보여주다가 엘리어스 애쉬몰(Elias Ashmole)에게 기증, 애쉬몰이 옥스퍼드시에 기부하면서 건립된 것이다.⁹⁾ 이후에 런던의 대영 박물관(The British Museum, 1753), 암스테르담의 국립 박물관(Rijksmuseum, 1808)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국공립 박물관들이 폭넓게 설립되었다.

디자인의 수집에 대한 관심 또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835년, 패션을 포함한 명품시장이 프랑스산으로 점령됨에 초조해하던 영국 정부는 '예술생산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f Arts and Manufactures)'를 구성하여 예술과 디자인에 중사하는 인력

의 지식확장 수단은 무엇이며, 관련 기관들의 법규, 경영 방식과 그 성과는 어떠한 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위원회가 내놓은 연구결과와 주요 해결책 중 하나는 '디자인 학교와 박물관의 설립'이었으며, 이로써 오늘날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A)과 왕립 예술 학교(RCA)의 역사가 시작되었다.¹⁰⁾

박물관의 역사에 비해 패션 수집의 역사는 짧은 편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비교적 낮은 지위를 지녔던 패션이 연구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초기의 박물관에는 소장품이 시기별 혹은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민족지적인 의복, 원단, 보석이 시기별로 흩어져있었다. 의복은 분류화의 영역에서 덜 의미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복식 및 텍스타일 부서를 별도로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이 생기기 전 소유는 부의 특별한 형태였으므로 사적 수집은 계속되었는데, 인류학적 혹은 고고학적 의미를 지닌 인공품 위주의 수집에서 의복은 작은 부분이었으며, 특별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통치자와 그의 배우자 및 가족이 대관식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행사에 입었던 진기한 생존품 혹은 충분히 부유한 가족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면 과거 의복은 살아남기 힘들었다. 특히 의복에 대해 실용적이었던 17세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의복은 버려지고 잊혔으며, 수선하여 대를 물리지 않았으므로 현대 박물관에서 17세기의 의복은 귀하다.

남아있는 의복의 많은 부분은 비공식적인 수집의 경로를 거친 것으로서, 예술가의 소재로 혹은 무대 의상으로서 남겨진 것들이다. 역사화를 그리는 예술가는 작품을 위하여 과거 원단이나 의복을 찾아다녔으며 어떤 이는 꽤 많은 축적을 이루기도 했다. 무대 의상 제작자 또한 다른 시대의 의복을 무대용으로 변화시키는 직관에 의해 과거 의복을 수집하였다. 이렇듯 역사화가 혹은 무대 의상 담당자에 의해 수집된 의복과 그러한 수요를 위해 빈티지 아카이브로 흘러든 의복들은 나중에 공립 컬렉션이 설립되면서 박물관에 기증되거나 팔렸다.¹¹⁾ 그러나 이런 경우 원천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박물관으로 들어간 의복관련 사적 수집은 많은 유용한 의미로 의복 연구를 보충해왔다. 1746년부터

터 1823년까지 8세부터 사망 2년 전까지 바바라 존슨(Barbara Johnson)이 수집한 스타일, 원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앨범은 영국 V&A가 수집하고 1987년 책으로 출판하여 18세기 의복에 관해 학생과 학자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1754년부터 1911년까지 가족에 의해 유지된 래티시아 클락 파웰(Laetitia Clark Powell)의 인형옷 컬렉션은 베스널 그린 박물관(Bethnal Green Museum, 현재의 V&A 어린이 박물관)에 기증되어 18-19세기의 의복 스타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¹²⁾

의복이 박물관 컬렉션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이다. 특히 의복 컬렉션이 과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60년대 이후로서 사진 속 도자기, 가구, 그림, 금속공예의 소유주가 입을 옷을 보고 그들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또한 컬렉션이 양적으로, 시기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큐레이터들이 다양한 규모와 위치의 박물관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부터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영국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프랑스의 장식미술 박물관 내 독립부서로 기틀을 잡은 패션 박물관이 각각 수 만점의 의상과 패션 소품을 소장하며 오늘날 대표적인 패션 박물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외에도 FIT 박물관(미), 패션 텍스타일 박물관(영), 갈리에라 모드 박물관(프), 교토 의상 연구소(일), 모드 박물관(벨) 등 독립 기관으로서 패션 박물관이 설립되어 오늘날 맥락을 가진 수집과 전시, 연구, 교육, 문화 전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 박물관들은 유네스코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의 국제 기준을 숙지하고 직면한 문제들을 상의하며, ICOM내의 국제의상박물관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Costume)를 통해 국제 회의 및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참가한다. 1962년에 창설된 국제의상박물관위원회에서는 1974년 복식의 체계적 분류와 관리를 위해 'Vocabulary of Basic Terms for Cataloguing Costume'을 제시하였으며, 1993년에는 의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등록, 보존, 전시, 사진 등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

였다.¹³⁾

2. 패션 박물관의 기능

1) 수집 및 전시

박물관은 재미있는 아이템을 다른 세계로부터 획득, 그것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역사적 의복과 액세서리는 장소, 재료, 장인 정신 그리고 사람에 관한 관심을 설명해주는 호기심 그룹 중 하나이므로 패션 박물관 또한 폭넓은 대륙과 문화에 걸친 컬렉션을 모으고 분류하여 공공에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정 기준에 의해 박물관에 들어온 소장품은 체계적 분류와 자료화를 통해 박물관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할 수 있으며 또한 박물관이 추가로 수집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 준다. 오늘날 국공립 박물관은 어떤 작품을 수집하고 또 어떤 작품을 거절하는지를 세심한 정책으로서 밝히고 있는데, 시즌마다 새로운 스타일이 넘쳐나는 패션의 경우 박물관의 수집정책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MFIT는 박물관 후원의 방법으로서 박물관에서 현재 기증받기를 원하는 작품을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랑방, 엘버 알바즈의 의상이나 액세서리', '언더커버, 준 다카하시의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 박물관이 밝히는 위시 리스트(Wish List)¹⁴⁾로 이 박물관이 현재 추구하는 수집의 방향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수집에는 분류 및 기록뿐만 아니라 보존을 위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보존인데, 조명이나 미생물 등 박물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패션 제품의 경우 특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정확한 환경, 넓은 수장고, 전문적 인력 확보 등 패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높은 비용 발생은 주목 받는 전시로 후원자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박물관의 패션 전시는 사회역사로서 혹은 장식미술로서 상설 전시되거나, 개념적 혹은 패션 변화의 대서사를 제안하는 기획 전시로 이루어진다. 전시의 경향은 시대 변천을 반영하며, 장소의 선택 또한 다

양하여 소장품의 소속 박물관 전시 외에도 KCI처럼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전 세계를 순회하며 관람객을 만나기도 하고, 갤러리아 모드 박물관처럼 가장 적합한 전시 효과를 위해 조각, 회화 등 타 분야의 공간에서 패션 전시를 하기도 한다.¹⁵⁾ 기획 전시는 박물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박물관의 패션 전시는 보통 박물관의 소장품과 타 박물관 혹은 패션 하우스로부터 대여한 작품으로 구성되는데 전시가 끝난 후 패션 하우스의 기증을 받거나 새로운 작품의 구입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박물관 소장품의 구성이나 비중 또한 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박물관의 수집과 전시는 그 자체로도 박물관 아카이브가 될 수 있는데, 좋은 예로서 V&A의 '400 Years of Fashion, anatomy of a collection'이라는 영화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박물관 수집과 전시에 관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현대의 패션디자이너, 연극, 영화 제작자들에게 유익한 연구 자료로 기능하여 박물관 소장품의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박물관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 카탈로그로도 추천된다.

2) 연구

박물관의 소장품 혹은 소장품을 이용한 역대 전시는 시대별 패션의 관심사와 예술,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 연구에 유용하다. 공공에 개방하는 전시 외에도 대부분의 패션 박물관은 학생이나 디자이너에게 학습 및 교육용 디자인 영감을 위한 소장품 접근을 허가한다. 박물관마다 정책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지만 대체로 학생이나 교육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업이나 디자이너는 멤버십에 가입된 경우 예약에 의해 박물관의 소장품과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공립 패션 박물관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온라인 자료를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소장품의 기원, 구성의 방법, 원단의 사용, 출처, 첫 주인과 현재까지 계승된 계보 등이 나타나 있으며 소장품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구매도 가능하다.

박물관의 도서관에는 책, 정기간행물, 사진, 필사본, 그 외 학술적 자원이 인쇄형태나 전자양식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스터디 센터를 두어 이미지, 기록문서, 실제작품을 관리한다. 도서관이나 스터디 센터는 보통 예약제로 운영되며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박물관은 소장품의 시기나 종류 등 배경지식을 추정할 수 있는 에세이 시리즈를 포함하는 박물관 카탈로그나 기획 전시와 관련한 출판 등을 박물관 출판부에서 혹은 특정 출판사와 연계하여 진행, 관람객과 연구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Met, V&A 등의 박물관 출판부 외에도 MFIT에서는 예일대학교 출판부와, KCI에서는 타센 출판사와 연계하여 도서를 출판한다. 또한 엽서, 슬라이드, 리플렛, 사진, 패션도판, 인형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 축적물이 소장품을 보충한다.

박물관은 또한 박물관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특정 분야 소장품을 연구하고, 그 분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하도록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디자이너에게 직접적인 연구기관으로 기능한다.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이 기회로 디자이너는 다양한 결과물을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관심 있는 관람객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한다. 관람객의 참여에는 입주 작가의 스튜디오와 작품 제작의 과정을 공개하거나 관심 소장품을 함께 관람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박물관의 연구 기능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학예 소장품 및 이미지 연구, 도서관 운영 및 출판, 레지던시 프로그램 외에도 인턴십과 펠로우십,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는 학예연구 등도 포함된다.

3) 소통

같은 시기에 10여 건의 패션 전시가 박물관에서 기획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을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의 디렉터, 베아트리지 살몽(Beatrice Salmon)은 패션이 많은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매료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한다.¹⁶⁾ 현대패션에 대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대의 관심을 인지한 박물관이 많은 관람객 유치가 보장되는 블록버스터형 패션 전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대의 관심에 의해 기획되는 박물관 전시는 학

생, 학자, 디자이너 및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강좌, 심포지엄, 출판 등을 동반하며 따라서 교육적 효과와 문화 소통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또한 오프닝 행사, 패션계 인사나 후원인을 만나는 행사, 디자이너 작업실 방문을 비롯하여 패션 문화의 확산을 돕는 다양한 행사 등 박물관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는 소통을 촉진하며, 유형 및 무형의 수익을 창출한다. 특히 전시 오프닝이나 시상식 같은 행사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는 축제로 기능하는데, 미국의 박물관에서 발달한 이러한 행사는 대중 영합주의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Met에서는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기획 전시 오프닝을 연례 후원행사(the annual Gala Benefit)로 진행한다. 많은 셀레브리티와 패션 전문가들의 참여로 영화제를 방불케 하는 이 행사는 박물관 후원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2011년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전을 위한 이 행사에서는 천만 불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생존 디자이너의 회고전이 자주 기획되는 최근에는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는 오프닝 행사로 대중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디자이너의 스타성에 기반한 대중의 참여는 박물관 시상프로그램에서도 이루어진다. MFIT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큐레이터, 에디터, 리테일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선출한 디자이너에게 'Couture Council Artistry of Fashion Award'를 시상하고 있다. 9월에 진행되는 후원 오찬(Benefit Luncheon) 형식의 시상식은 연초부터 공지되며 \$1,000-\$2,500의 후원 티켓 판매로 기금을 조성한다.¹⁷⁾ 한편 시상 행사로 다른 차원의 소통을 시도하는 예로 영국 바스 의상 박물관(Museum of Costume in Bath)의 'Dress of the Year'¹⁸⁾를 들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설립 당시(1963)부터 패션 전문가에게 의뢰, 당해 가장 새롭고 중요한 드레스를 선정하도록 하여 시상해 왔는데, 시상과 함께 수상 디자이너로부터 해당 드레스를, 마네킹 전문회사인 아델 루트스타인(Adel Rootstein)사로부터 최신 마네킹을 기증받아 전시한다. 어떤 디자이너가 발표한 어떤 드레스가 어떤 셀레브리티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어떤 장소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선정하였는지를 밝히는 이 시상 행사는 관람객과의 소통 외에

도 패션과 디자이너, 그리고 셀레브리티의 관계, 시대변화에 따른 드레스 선호도와 이상적인 신체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연구 자료도 제공한다.

기획전이 주축 박물관을 벗어나 전 세계의 도시를 순회하는 현상은 적극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KCI는 설립 초기부터 순회 전시로 일본의 패션 문화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왔으며, 'Jean Paul Gaultier: the Catwalk to the Sidewalk'전, 'Hats: An Anthology by Stephen Jones'전, 'Inspiration Dior'전 등 순회를 통해 더 많은 관람객에게 패션디자이너를 예술가로 인식시키는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¹⁹⁾ 예술가의 출신지에 건립되는 기념박물관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듯 패션디자이너의 기념박물관 또한 같은 기능을 한다. 아카이브의 가치를 인식한 패션 하우스들이 자체 박물관을 설립하기 시작한 최근,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의 고향, 스페인의 게타리아에 설립된 발렌시아가 박물관은 빌바오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추가하였으며, 페라가모 박물관에 이어 구치 박물관이 들어선 이태리 피렌체 또한 관광명소를 추가하였다. 한편 발렌티노는 온라인상에 가상 박물관²⁰⁾을 만들어 전 세계 관람객이 발렌티노의 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패션 하우스 기념박물관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였다.

3. 해외 패션 박물관의 현황

1) 미국

(1)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²¹⁾

Met의 패션 학예부문은 1937년 설립되고 아이리니 르위손(Irene Lewisohn)에 의해 운영되었던 'the Museum of Costume Art'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관은 1946년 패션 산업의 경제적 후원으로 Met에 합병되어 1959년 독립적인 학예부문인 의상연구소(The Costume Institute)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Met 의상연구소는 35,000여 점의 5대륙, 5세기에 걸친 의상과 액세서리를 소장한 최대 규모의 패션 박물관으로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5,000스퀘어 피트 면적의 독립 갤러리가 있으며 3만권의 회서를 비롯해 정기간행물,

참고도서, 세계 장식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와 패션 프린트, 드로잉, 사진, 스케치북, 디자인 등을 보유한 패션 도서관, 'Irene Lewisohn Costume Reference Library'가 있다. 2009년에는 부르클린 박물관이 100년 이상 축적해온 의상 컬렉션을 Met 의상연구소로 소속을 이관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찰스 제임스(Charles James)의 소재 컬렉션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미국 패션의 소장품을 포함한다. 이 소장품의 합병으로 Met 의상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종합적인 의상 컬렉션을 구성하게 되었다.

Met 의상연구소는 상설 전시 외에도 년 1-2회의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특히 Met의 패션 전시는 대중적인, 즉 일반 관람객 유치를 위한 행사로 주목을 받는다. 의상연구소는 설립 후 4년이 지나서야 전일제 큐레이터를 채용하였고, 1972년 하퍼스 바자의 에디터와 보그의 편집장을 지낸 다이애나 브릴랜드(Diana Vreeland)를 특별 컨설턴트로 임명하면서 스펙터클한 패션 전시의 국가적,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브릴랜드는 'The World of Balenciaga'(1973)라는 첫 전시로 위대한 예술가를 위한 박물관에 패션디자이너를 성공적으로 담아냈으며, 'Hollywood Design'(1974), 'The Glory of Russian Costume'(1976), 'Vanity Fair'(1977) 등의 전설적인 전시들을 조직하였다. 브릴랜드는 박물관 관례와 윤리 이해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²²⁾, 전시가 가진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어 패션 전시를 빛나는 사치, 패셔너블 행사로 재조명시켰으며, '생존 디자이너의 전기'라는 컨셉을 박물관에 소개하였다. 브릴랜드 이후 특별 컨설턴트는 없었지만 박물관 전시는 그 시절에 구축된 패턴을 따랐으며 그 영향은 미국 전역에 잘 스며들었다.

Met는 전시와 관련된 출판 즉, 전시 카탈로그를 단순히 이미지 위주의 소개를 넘어 사회, 문화, 정치적 사고와 결합된 분류, 연구, 비평으로 학문적 축적에 기여하도록 만든다. 또한 이론에 기반을 둔 에세이 리스트, 참고문헌 리스트, 과거 스페셜 전시의 이미지와 설명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며 패션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돕는다.

Met 의상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기획 전시와 함께 한다. 기획 전시 기간에는 전시 투어가 있으며, 회원 혹은 일반인 대상의 전시 프리뷰, 큐레이터의 전시 관련 강의, 세미나 등 이벤트도 기획된다. 특히 전시관련 토론이나 워크숍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패션 전시뿐만 아니라 고전예술 박물관이라는 환경과 결합한 관람객 교육도 있다. BC 6세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갑옷, 텍스타일, 회화, 조각, 장식예술 등 박물관이 소장한 컬렉션을 통해 패션의 역사를 설명하는 'Fashion in Art' 투어가 있으며, 같은 내용의 오디오 가이드 'Costume: The Art of Dress'가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박물관 소장품에 내재된 패션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다.

박물관은 다양한 후원 제도를 제안하는데 Met 차원의 개인 및 그룹 멤버십 제도 외에도 의상연구소는 매년 기획전 오프닝에 패션 기업의 후원을 받는 'the annual Gala Benefit'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갈라 베네피트는 1948년 'The Party of the Year'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재클린 오나시스(Jacqueline Onassis) 등 유명인이 의장을 맡아 온 시각적인 행사로서, 최근에는 1995년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는 미국 보그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Anna Wintour)의 주도로 패션, 영화, 사회, 음악 산업 등 각 분야의 뛰어난 후원 리스트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2002년부터는 전시, 구입, 보존, 출판의 후원을 위한 'the Friends of the Costume Institute'가 결성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패션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FIT 박물관(MFIT)²³⁾

MFIT는 패션에만 집중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박물관 중의 하나이다. 1967년 뉴욕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소속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FIT)의 부속기관, 'the Design Laboratory'로 시작한 이 박물관은 70년대부터 부르클린 박물관에서 장기 대여한 컬렉션으로 전시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많은 소장품을 갖춘 독립 박물관으로 성장하였다. 80년대에 고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과 그의 동료 해롤드 코다(Harold Koda)에 의해 'Fashion and Surrealism', 'Three Women, and Jocks and Nerds'와 같은 독창적인 전시가 기획되었으며, 증가하는 의상과 텍스타일의 관리를 위한 보존 연구실이 설치되는 등 교육적 도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the Design Laboratory'는 1993년 FIT 이사회에 의해 The Museum at FIT(MFIT)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오늘날 18세기 이후 50,000여 점의 의상, 17세기 이후 신발, 모자, 핸드백, 부채, 장갑, 벨트, 양말, 보석 등 15,000여 점의 액세서리, 5세기 이후 의복 및 실내 장식용 직물, 레이스, 자수, 퀼트, 솔 등 30,000여 점의 직물, 그리고 하퍼스 바자, 보그, 글래머 등과 작업한 루이즈 달 울프(Louise Dahl Wolfe), 존 로링스(John Rawlings)의 사진 컬렉션 등을 소장한 전문적인 패션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 연평균 100,000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이 박물관에는 '패션사 및 텍스타일사 갤러리'와 '특별전시 갤러리' 외에도 FIT 학생을 비롯하여, FIT와 타교간 워크숍 결과물 전시, 학생이 큐레이팅한 전시, 교수작품 전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갤러리 FIT'가 있어 지속적인 전시가 연중 이루어진다. 또한 10,000스퀘어 피트의 수장고와 보존 연구실은 자주 교수와 학생이 수업으로 혹은 개인예약에 의해 교육에 이용되며 현업 디자이너들의 영감을 위해 개방된다.

MFIT의 전시와 관련한 출판은 예일대학교 출판부(Yale University Press)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패션계 리더를 초빙한 토론행사, 패션 신간의 저자초빙 강연 및 사인행사, 다학제간 온/오프라인 워크숍, 국제학술대회 등을 포함한다. 특히 패션에 대한 학문적 깊이를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국제학술대회, '패션 심포지엄'은 박물관의 기획전과 연계된 주제로 매년 이틀간 열리며 저명한 학자, 저자, 큐레이터의 다학제간 토론으로 새로운 학문적 축적을 이룬다. 출판, 학술대회 등으로 보여지는 MFIT의 학문적 성장에는 전문 큐레이터 발레리 스틸(Valerie Steele)의 역할이 큰데, 1997년 박물관에 합류, 2003년에 디렉터가 된 스틸은 'London Fashion', 'The Corset: Fashioning the Body', 그리

고 'Gothic: Dark Glamour' 등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기획하였다.

박물관의 후원을 위해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멤버십 그룹, 'the Couture Council'은 전시와 공공 프로그램 후원을 하며, 2006년부터는 큐레이터, 에디터, 리테일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선출된 디자이너에게 'Couture Council Artistry of Fashion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위원회 차원의 후원 외에도 복원, 교육, 작품구입, 온라인 전시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 후원, 전시나 전시와 관련한 행사를 지원하는 기업 후원, 박물관에서 원하는 작품을 온라인상에 명시하여 작품의 기부를 유도하는 '위시 리스트' 등의 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Met와 MFIT 외에도 미국 내 구겐하임 박물관(Guggenheim Museum), 쿠퍼-휴잇 디자인 박물관(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패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필라델피아(Philadelphia Museum of Art), 로스앤젤레스(LACMA), 샌프란시스코(FAMSF de Young), 디트로이트(MOCAD), 델러스(DMA)의 현대미술관 등 지역 미술관에서도 패션을 예술로 다루는 전시가 기획되고 있다.

2)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A)²⁴⁾

V&A는 오래전부터 텍스타일과 패션을 함께 수집해왔으며 오늘날 가구, 텍스타일 및 패션부문(Furniture, textiles & fashion department)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V&A 패션 수집의 역사는 텍스타일 수집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데, 오랫동안 패션은 특별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만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V&A의 텍스타일 컬렉션은 왕립 예술 학교(Royal College of Art, RCA)의 전신인 정부 디자인 학교(Government Schools of Design) 내 학술 컬렉션의 형태로 1842년부터 운영되었다. 1852년 V&A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중세 텍스타일이 의복의 형태로 구입되었고 1851년의 만국 박람회와 두 차례의 파리 박람회(1855, 1867)에서 현대 직물과 프린트된 텍스타일을 구입하여, 주로 19세기 이전의 공예품들을 강조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국립 컬렉션으로 지정된 V&A의 패션 컬렉션은 17세기의 회귀품과 함께 18세기 이후의 영국, 프랑스의 패션너블 의복과 액세서리로 이루어졌으며 20세기의 미국과 일본 컬렉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하위문화는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 독특한 컬렉션을 자랑한다. 초기에는 텍스타일이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의복이 구입되었지만 점차 다른 이유, 즉 독특한 절개선, 구성, 출처, 회귀성 그리고 미적 매력에 의한 수집이 기증, 개인 소유의 유산, 구매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740년대의 거대한 망토, 스위스의 이브닝 가운들, 찰스 제임스의 패드된 새틴 자켓, 크리스찬 디오르의 뉴욕 수트,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boucher' 드레스와 'mock-croc' 블루 플랫폼 슈즈는 V&A의 대표 작품들이다. 18세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의상을 다루는 박물관이지만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원단을 사용하거나 21세기 런던, 벨기에의 떠오르는 디자이너를 포함하는 수집 정책의 확장으로 신진 패션디자이너들에게 박물관 캣워크나 전시 참여의 기회를 주는 정책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 스트리트(2005-2010)를 위한 디자이너의 작품이 21세기의 글로벌, 패스트 변화가 스며있는 e-bay(인터넷 경매 사이트)로 구매되고 있다. 독립 의상관은 1962년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리노베이션한 '패션 갤러리'에서 주제별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가 열린다. 또한 라파엘 갤러리를 배경으로 년 2-3회 개최되는 '패션 인 모션(Fashion in Motion)'을 통해 기성 혹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캣워크 행사도 진행하며, 별도의 전시실에 RCA, CSM, LCF 등 런던 패션학교 졸업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V&A 박물관은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6개월간 박물관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준비하게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패션디자이너도 참여시킨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허가된 일자에 디자이너의 스튜디오를 방문, 디자이너에게 허락된 소장품을 함께 관찰하게 하는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보다 더 폭넓게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은 출판물 통해 전시의 환상을 전파시키며, 과거 전시나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온라인에 게재한다. 박물관 교육으로는 가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컨퍼런스, 심포지엄, 토크, 투어 & 렉처 프로그램이 있으며, 소장품을 이용한 워크숍도 운영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방법 외에도 박물관 패션부문은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 공공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후원 프로그램으로는 V&A 멤버십, 디렉터 서클(Director's Circle), 유언장 기부약속 등의 개인 후원과 기업 파트너십이 있다.

V&A는 패션을 다루는 영국 내 100여개 박물관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기술과 전문지식, 전시를 공유한다. 2009년에는 바스 의상 박물관(Museum of Costume in Bath), 보우스 박물관(Bowes Museum)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비오네(Madeleine Vionnet)의 쿠튀르 가운 그룹을 구입, 영국 밖으로의 유출을 막아냈다. V&A는 또한 이러한 파트너십을 이용해 모든 컬렉션에 영국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등 패션 전문지식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런던에는 V&A 외에도 패션 전문 박물관으로서 디자이너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가 설립한 패션 텍스타일 박물관(Fashion Textile Museum, FTM)이 있어 1947년부터 현재까지 패션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작품과 잔드라 로즈의 40여 년간의 작업물(샘플, 종이패턴, 소재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이 박물관은 뉴햄 대학(Newham College)이 재개발하여 상설 및 기획 전시 외에도 다양한 창의 코스를 운영, 패션과 보석류 산업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킹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²⁵⁾ 또한 런던 박물관(Museum of London)도 '드레스와 패션' 부문을 운영, 수도의 연대기적 역사와 관련한 전시를 기획한다. 런던 외에도 맨체스터(Gallery of Costume in Manchester), 바스(Museum of Costume in Bath), 처치(Chertsey Museum) 등도 독립 박물관으로서 혹은 독립 학예부문으로서 패션 전시를 조직하거나 패션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 프랑스

(1) 장식미술 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²⁶⁾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의 모드 텍스타일 부문(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의 역사는 1948년 복식사가 프랑수아 부셰(François Boucher)가 설립한 UFAC(the Union Française des Arts du Costume)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UFAC는 UCAD(the Union Centrale des Arts Décoratifs, 1905년 설립, 2004년 장식미술 박물관으로 명칭변경)에 합병되어 'Musée des Arts de la Mode'를 구성하였다. 5년 뒤인 1986년에 루브르 박물관 내 the Pavillon de Marsan에 개관한 'Musée des Arts de la Mode'는 1997년에는 the Rohan wing에 2개 층 1,500스퀘어 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UCAD가 이미 실크, 자수, 프린트된 면, 코스튬, 레이스, 테피스트리 등 다양한 텍스타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박물관에는 7세기 이후 30,000여 점의 텍스타일, 섭정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16,000여 점의 의상과 35,000여 점의 액세서리 등 81,000여 점의 소장품이 있는데, 역사적 의상뿐만 아니라 20세기의 폴 포아레, 마담 비요네, 엘자 스키타파렐리, 크리스찬 디올 등의 패션아이템과 라울 뒤피, 소니아 들로네, 레베 등의 텍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 15세기 이후의 회서를 포함한 도서, 카탈로그, 정기간행물 등 120,000종의 자료를 보유하는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다.

(2) 시립 갈리에라 모드 박물관(Musee Galliera de la Mode de la Ville de Paris)²⁷⁾

1956년 개관한 시립 의상 박물관(Musee du Costume)은 1971년 문을 닫았다가 1977년 갈리에라 공작부인이 파리에 기증한 갈리에라 궁에 자리잡으며 갈리에라 모드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개관하였다. 폐관 중에도 박물관의 소장품은 관리 및 연구되었으며, 1976년에는 박물관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서를 발간하기도 했다.²⁸⁾ 이 박물관은 18세기 이후 30,000여 점의 의상과 40,000여 점의 액세서리를 소장하고 있으며, 서양복식사와 현대복식에 관한 방

대한 자료를 보유한 도서관이 있다. 보존의 문제로 상설전시는 하지 않으며 년 2회의 기획전시를 각 4-6개월간 한다. 2008년부터는 어린이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4) 일본: 교토 의상 연구소(KCI)²⁹⁾

1970년대 중반, 당시 교토 상공회의소 부회장이었던 (주)와코르의 설립자 고이치 츄카모토(Koichi Tsukamoto)는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제안으로 도쿄 국립 미술 박물관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기획 전시를 유치하였는데, 첫 대규모 패션 전시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접하면서 츄카모토는 문화로서 패션의 전망을 보게 된다. 1978년 그는 12억 2천 엔을 출연하여 KCI를 설립, 오늘날 17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11,000여 점의 의상과 13,00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한 글로벌 규모의 패션 연구기관으로 성장시켰다. 현대 패션은 샤넬, 크리스찬 디올, 루이 뷔통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으며 특히 콤포데 가르송은 약 1,000세트의 의상을 기부하였다. KCI의 갤러리는 86평방미터의 작은 공간으로 상설전시는 하지 않는다. 동시대의 패션 현상에 주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여 KCI 단독 혹은 전 세계 박물관들과의 협업으로 전시를 조직, 세계의 패션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한다. 그동안 발표했던 주요 전시로는 'Revolution in Fashion', 'Japonism in Fashion', 'Visions of the Body', 'Fashion in Colors', 'Luxury in fashion Reconsidered' 등이 있다. KCI는 또한 효과적인 역사상 전시를 위해 시대에 적합한 마네킹을 만들었는데, 1978년 Met와 협업하여 첫 마네킹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다양하게 개발된 KCI 마네킹은 전 세계 박물관에서 사용된다.

KCI의 운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전통 문화의 중심도시인 교토에, 서양에서도 흔치않은 17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서양 패션 중심의 소장품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서양 패션의 역사를 알아야 현대 패션을 주도할 수 있다"는 설립자의 신념에는 서양 패션사에 일본 문화를 담은 근거를 찾겠다는 전략이 엿보이며 실제로 그것은 성공적이었다. KCI는 그즈음 서양 진출에 성공한 일본 패션디자이너들의

든든한 정신적 후원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컬렉션을 세계 패션 역사에 성공적으로 담아낸 것이다.³⁰⁾ 1994년 기획되어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에 초대되어 10년 이상 서양에 끼친 일본 패션의 영향을 알렸던 'Japonism in Fashion'전은 KCI의 서양패션 소장품에서 발견되고 시작된 연구의 결과였으며,³¹⁾ 30여 년 수집과 연구의 결과로서 최근에는 'Future Beauty: 30 Years of Japanese Fashion'전을 런던의 복합문화공간,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er)에서 개최하여 일본 패션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KCI는 연구기능을 중시하여 'DRESSTUDY'라는 의상 학술지를 1982년 창간, 연2회 발행하고 있으며, 전시와 관련하여 전시 카탈로그, DVD 등도 함께 출판한다. 한편 KCI소장품만으로 패션 역사책도 여러 권 출간하였다. KCI의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소장품 중 약 200여 점의 이미지와 역사적 배경 등 상세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디자이너와 연구자를 위한 유료 스튜디오 룸을 운영하며 커스텀, 언더웨어, 액세서리 등 11,000여 점에 대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KCI는 일본의 박물관 학예 전공자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 학예사 배출에 일조하고 있으며, 전시와 관련한 강의와 워크숍을 일본 내수기업 및 대학들과 협업하여 진행한다.

Ⅲ. 한국 패션 박물관을 위한 제언

1. 한국 현대패션의 보존 및 전시

우리나라가 갑신정변 이후 근대화의 영향으로 서양 복식을 일상생활에 채택한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그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류, 연구를 통한 정체성 확립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공립 박물관이나 대학의 복식 박물관에서는 전통 복식을 다루고 있으며, 현대 패션은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현대대상박물관 한곳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한국현대대상박물관³²⁾은 국제패션디자인학원의 신혜순원장이 1993년 문화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서양 패션 박물관으로, 현재 2,000여 점의 시대별 의상과 액세서리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은

최경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초기 디자이너의 컬렉션과 유명 인사들이 입었던 국내외 디자이너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패션 전공자 및 패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패션의 변천사를 소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 디자인 조기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후원 없이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박물관으로서 지속적인 작품수집을 비롯하여 전시 공간이나 수장고 등의 물리적인 문제, 체계적인 연구, 선진적인 관리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차원의 해결과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사립 갤러리나 백화점의 전시 공간, 플래그십 매장 혹은 편집매장 등에서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회고전 혹은 잡지사 주최의 주제가 있는 패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재된 장소, 짧은 전시 기간, 제한된 홍보 등의 문제로 접근의 폭과 빈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개념적 혹은 패션 변화의 대서사를 제안하는 기획전시, 그리고 전시와 연계된 세미나, 워크숍, 출판 등의 관련 행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2. 한국 패션 박물관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언

한국 패션 박물관의 필요성 제기는 근현대 패션의 서구화와 산업화에 대한 기록 부재에 대한 환기에서 출발하였다. 역사 기록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바로 교훈이고 그에 따른 진보인데, 바로 이점에서 패션 박물관의 건립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오늘날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가 인식하고 수용할 만큼 매력이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주 거론된다. 김민자³³⁾는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글로벌 문화산업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전통의 현대화, 즉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을 찾아 자기이국화(doing something Korean)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 복식의 '과거성'과 무의식적 서양 복식의 수용으로 구성된 '현재성'을 해체하고, 서양의 합리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세계 패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라는 특정한 문화를 생산함으로써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전통 복식뿐만 아니라 가까운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는 '현재성'에 대한 축적과 연구가 시급한 것이다.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의 남경필의원³⁴⁾은 한국에 패션 박물관이 부재했던 이유에 대해 패션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우선했던 그간의 행정 정책을 들었다. 그는 패션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문화적 접근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을 규명하고 교육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패션 박물관 건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패션의 문화 산업으로서의 가치정립과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공립 패션 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은 최근 들어 디자이너와 업계, 학계 등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³⁵⁾

패션 선진 국가들의 패션 박물관 운영 사례를 고찰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패션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 갖추어야 할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기존 패션 박물관의 기능에 기초하여 전통과 서구화의 구분이 뚜렷한 한국 패션의 상황, 세계의 주목을 막 받기 시작한 한국 문화의 위치 등을 고려한 것이다.

1) 수집과 전시

한국 패션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서양 복식사의 이해를 돕는 서양의 근현대 패션과 한국의 현대 패션을 함께 갖춘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수집을 위해 디자이너 및 국내외 기업의 기증, 구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파트너십, 기부행사, 박물관 내 개인 컬렉션 구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상이나 시대별 상징 의상 컬렉션 등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패션 박물관은 한국적 정체성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소장품 구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근대이전의 전통 복식의 구성에 대해, 혹은 전통 복식을 갖춘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 박물관과의 협조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장품의 주제별 전시를 상설로 운영하되, 한국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적 개념을 신기술과 접목하여 기획 전시를 하도록 한다. 소장품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되고 출판되어야 한다. 수집되고 분류된 소장품을 다른 관점으로 고찰하다보면 혁신적이고 새로운 조항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견된 패턴의 전시와 출판은 새로운 수집의 필요성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회고전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및 기획되고, 전통 복식 박물관과 혹은 다른 분야, 다른 나라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패션의 대사를 고찰하는 연구 및 전시가 활발하게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수집과 분류, 주제별 연구의 결과물은 이론적 기록을 통해 개방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박물관에는 소장품에 대한 기록 외에 다양한 전문서적, 사진, 영상 등을 보유하는 자료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보존 및 기록과 함께 글로벌 시대 박물관의 추세에 발맞추어 디지털 자료의 구축으로 웹이나 스마트폰에서 박물관 아카이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적 운영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발렌티노의 가상 박물관처럼 새로운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미래지향적 형태 구상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다양한 차원의 한국 문화에서 지적인 자극, 호기심, 흥미를 수용하고자 하는 세계적 관심과도 맞물린 것으로, 한국 패션 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박물관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출판이다. 박물관의 소장품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서적과 더불어 전문 학술지도 패션 박물관이 지닌 연구 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KCI가 'DRESSTUDY'라는 학술지 발간과 함께 '세계 패션의 자포니즘'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던 사례가 패션에서 후발국인 한국의 강점 발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기획 전시의 카탈로그 출판 또한 한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전시의 학술적 의의와 감동을 담은 카탈로그는 영문판을 합

게 발간하여야 할 것이다.

패션 박물관 건립이 문화적 시설 인프라를 넘어서 인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는 사실의 강조는 지나칠 수 없다. 박물관이 인재를 키우는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박물관 소장품과 자료의 개방으로 아이디어의 창출을 돕는 방법 외에도, 박물관에 디자이너의 작업실을 제공하여 소장품을 연구하고 디자인 영감을 찾아 컬렉션을 준비하도록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및 신진디자이너를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를 기획, 디자인 창의 인재들의 참여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3) 소통

박물관의 교육을 위한 역할은 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외에도 관광객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의 주제가 있는 전시 투어와 큐레이터, 디자이너, 에디터 등 패션계 인사의 강연 및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갤러리 토크, 청소년 워크숍, 다학제간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 외에도 해외의 몇몇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던 새로운 관람객의 유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소통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데, 영향력 있었던 국내의 패션 인사에게 시상하는 행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IV. 결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렸던 이우환 회고전 'Lee Ufan: Marking Infinity'을 기획한 알렉산드라 먼로(Alexandra Monroe)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천재이고, 또한 천재를 키우고 널리 알리는 시스템이라는 의견을 밝혔다.³⁶⁾ 가까운 미래에는 천재적 창조자가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기업가의 예견이 아니더라도 모든 창조의 영역에는 천재가 필요하고 그를 알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천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데 있어 박물관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이를 갖추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이 반복되는 시스템으로는 천재를 가질 수 없다.

진태옥, 이신우 등 한국 현대 패션사를 형성하는 디자이너들이 상당한 수량의 과거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패션 역사에서 아직 제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들 개인 소장품이 제대로 연구 및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적절한 보존 환경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글로벌 브랜드로 점령당한 서울에, 남의 것을 베끼는 것에 무감각해진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패션문화의 아카이브이고, 그 문화 아카이브에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창출하는 연구의 장이며, 언젠가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설 우리 디자이너에게 '패션의 역사를 바꾼 천재'라는 평가를 내려 줄 축적된 기록과 해석의 보고, 패션 박물관이다.

본 연구는 연구 및 교육 콘텐츠의 보고이자 창조 영감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문화 지위를 제고시키는 한국 패션 박물관의 필요성 도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선진국 패션 박물관의 역사와 기능, 국가별 패션 박물관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패션 박물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 고찰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패션 박물관이 국공립 박물관내 독립적 학예부문으로 구성된 시기는 20세기 중후반으로서, 박물관의 역사가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것에 비해 패션이 수집 및 연구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린 것을 알 수 있다. 패션 컬렉션이 과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야 양적, 시기적 수집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을 가진 '수집 및 전시', 자료의 축적과 기록, 출판, 레지던시 등의 '연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으로 논의된 패션 박물관의 기능과 국가별 패션 박물관의 역사와 시설, 소장품, 연구, 교육, 이벤트 등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패션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과 이상적인 구성과 운영 형태를 도출하였다.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외국의 패션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의 옷을 함께 다루고 있음에 반해 한국의 국공립 박물관에서는 전통 복식만을 다루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글로벌 환

경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가 인식하고 수용할 매력적인 문화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의 효과적인 수행주체로서 전통의 현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패션 박물관은 서양 복식사의 이해를 돕는 서양의 근현대 패션과 한국의 현대 패션을 함께 갖춘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적 정체성 연구를 위한 전통 복식의 구성문제는 전통복식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박물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은 패션의 대서사를 고찰하는 연구 및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늘 새로운 수집의 필요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전시 기획에는 박물관 소장품과 전통 복식 박물관이나 다른 나라 박물관, 혹은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 적극 활용되어 전통의 현대화를 다양한 선진적 방법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연구 기능은 디지털 자료의 구축, 학술지와 전시 카탈로그의 출판, 인재 양성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신진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별도의 갤러리 운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박물관을 통한 소통 기능은 전문가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세미나 및 심포지엄과 기획전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전시 투어, 갤러리 토크, 청소년 워크숍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새로운 관람객 유입을 위한 개성 있는 이벤트 등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Wilson, Eric (2011. 8. 8), "McQueen: The Final Count.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nytimes.com>
- 2) 패션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최로 열린, "창조산업의 침병, 패션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2011. 3. 14)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션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3) 자료검색일 2012. 2. 10, <http://blog.daum.net/film-art>
- 4) 윤은재, 박형에 (2006),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18세기 복식전시가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 pp. 25-35.
송수원, 김민자 (2006),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영국적 이미지, *복식*, 56(2), pp. 1-16.
박신미 (2011),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다임 특성 고찰, *복식*, 61(7), pp. 80-100.
- 5) 양현미 (2001), 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박물관 연구와 정책,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20-121, 143-144.
이영희 (2002), 국립박물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4(1), pp. 45-48.
- 6) Cumming, Valerie (2004), *Understanding Fashion History*, London: BT Batsford, p. 75.
- 7) 국제박물관협회(ICOM) 정관.
양현미 (2001), *op. cit.*, p. 120.
- 8) *Ibid.*, p. 119.
- 9)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ashmolean.org>
- 10) Cumming, Valerie, *op. cit.*, pp. 52-53.
- 11) *Ibid.*, p. 50.
- 12) *Ibid.*, p. 51.
- 13) 양현미 (2011. 3. 14), *창조산업의침병, 패션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pp. 68-69.
- 14)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fitnyc.edu/3515.asp>
- 15) 갈리에라 모드 박물관은 2011년 여름, 조각가가 되고 싶었던 패션디자이너, 마담 그레의 드레스를 부르멜 박물관의 조각들과 함께 배치하여, 옷과 조각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며('Madame Grès' 전), 웨스트우드, 라거펠트, 고티에, 라크르와, 데스켄스, 마르지엘라, 알라이아, 맥퀸, 야마모토, 뫼글러 등 18세기에 매료되었던 현대의 거장들을 탐구하는 전시, 'The 18th Century Back in Fashion'을 베르사이유궁에서 진행하였다.
- 16) Menkes, Suzie (2011. 7. 5), "Gone Global: Fashion as Art?",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pp. 9-10.
- 17)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fitnyc.edu/3525.asp>
- 18)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museumfcostume.co.uk>
- 19) Menkes, Suzie (2011. 7. 5), "Gone Global: Fashion as Art?",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pp. 9-10.
- 20) retrieved 2012, Feb. 10, from <http://www.valentino-garavani-archives.or>
- 21)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metmuseum.org>
- 22) Cumming, Valerie, *op. cit.*, p. 72.
- 23)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fitny.edu/3662.asp>
- 24)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vam.ac.uk>
- 25)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ftmlondon.org>
- 26)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lesartsdeco.ratifs.fr>
- 27)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paris.fr/loisirs/musees-expos/musee-galliera/p5854>
- 28) Cumming, Valerie, *op. cit.*, p. 71.

- 29) retrieved 2011, Dec. 10, from <http://www.kci.or.jp>
- 30) 박주희 (2011), 디자인 영감의 보고 Fashion Museum, *Sadi Visions*, 24, pp. 4-5.
- 31) Akiko, Fukai (1994), *Japonism in Fashion*, 허은주 역 (2011), *자포니즘 인 패션: 바다를 건넌 기모노*, 서울: 제이앤씨, pp. 10-14.
- 32) 자료검색일 2012. 2. 10, <http://www.kmmc.or.kr>
황수현 (2011. 4. 5), "패션박물관을 허하라: 한국엔 왜 패션박물관이 없을까?", *주간한국* 2367, p. 18.
- 33)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전통미와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4-13.
- 34) 황수현 (2011. 4. 5), "패션박물관을 허하라: 인터뷰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대표 남경필의원", *주간한국* 2367, p. 23.
- 35) 이상봉 외 (2011. 3. 14), *창조산업의 쉼병, 패션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최현숙 (2011. 3. 28), "패션박물관 왜 필요한가", *어패럴뉴스*, p. 15.
황수현 (2011. 4. 5), "패션박물관을 허하라: 인터뷰 한국패션협회 원대연회장", *주간한국* 2367, p. 22.
- 36) 콕아람 (2012. 2. 1), "한류 확산? 천체를 키워라", *조선일보*, A23.